

MVP선교회 2017/01/20 WINTER

vol.48

# 벤처선교

MISSION VENTURE PARTNERS

교회의 성장과 고민

중앙아시아, 중국 신장 권역 개관 / W족 A 이야기 / 공동체의 유익과 풍성을 지향하는 리서치 / 초보어부 이야기 /  
가방. 공감. 나눔 /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 / GLCS 선교특강 1년을 돌아보며



# Contents



## 여는 글

교회의 성장과 고민 | 장선우 03



## 리서치

중앙아시아, 중국 신장 권역 개관 | 리사원 04



## 현장 이야기

W족 A 이야기 | 누리 09

공동체의 유익과 풍성을 지향하는 리서치 | 김인애 14

초보어부 이야기 | 전해솔 17

가방. 공감. 나눔 | 최현희 20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 | 윤정 23



## 훈련 이야기

GLCS 선교특강 1년을 돌아보며 | 전상일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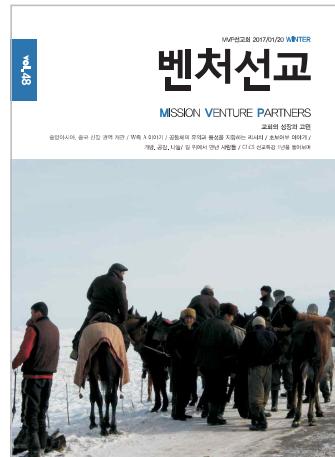
## 새소식 및 후원안내

MVP선교회 새소식입니다 28

선교사 소식 및 본부 후원자 30

선교사 후원계좌 31

# Cover Story



키르기즈스탄은 2016년을 ‘역사와 문화의 해’로 지정하여 독립 25주년을 기념하였다. 소련이라는 ‘철의 장막’이 걷히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중앙아시아에 파송되었다. 키르기즈스탄에는 터키로부터 오는 이슬람의 영향이 증대되고 있다. 동시에 선교사들의 사역도 수도인 비쉬켁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사진제공: 키르기즈스탄 사역자

## 이사장 신동우

실행이사 신종렬 이종훈 이훈민 정우길 조명순 지경준 한정국 한천희 홍성원

후원이사 김만형 박삼열

협동이사 김동해 이수진 이지호

본부장 장선우 | 멤버케어 이응복 | 훈련동원 총무 전상일

벤처선교사역개발원 원장 구영삼

캠퍼스&교회개척선교사역개발원 원장 김홍빈

리서치선교사역개발원 원장 김인애 | 연구원 윤정 전해솔 최현희 | 협력연구원 강원국 김소윤 이영배

본부간사 권선주 김민숙 문현심 최현미

협력간사 김효중 손인종 윤여광

발행인 신동우 | 편집인 장선우 | 교정 김인애 최현희 | 편집·디자인 김민숙 윤여광

발행처 MVP선교회 | 발행일 2017년 1월 20일 | 발행부수 1500부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67(망원동 378-11) 그린빌딩 5층

이메일 mvpok01@gmail.com | 홈페이지 www.mvp.or.kr

전화 02)703-1215 | 팩스 02)703-1216



MVP선교회는 1999년 미전도종족 복음화의 꿈을 품은 이들이 모험, 도전,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시작한 최전방개척선교회입니다.



# 교회의 성장과 고민

지난 연말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중 종교인구에 관한 통계 결과가 많은 이들을 당황하게 했다. 통계청에 의해 10년만에 이루어진 이번 조사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가장 높은 통계 조사이다. 지난 2015년 이 조사가 진행 중일 때만 해도 교계는 개신교인의 수가 당연히 줄어들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 통계에 따르면 개신교는 지난 10년 간 약 123만명이 증가하여 불교를 제치고 가장 많은 신도를 보유한 종교가 되었다. 많은 이들이 당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통계가 발표된 이후 교계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이전 통계의 오류 가능성, 조사 기법의 변화, 이단의 증가, '가나안 성도'의 증가 등 이 기이한 통계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이유들이 제시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네 교회의 현실을 보면 개신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10년 간 교회는 성장했다. 그런데 고민은 더 깊어졌다. 대체 우리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인가? 설령 개신교인의 숫자가 대폭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도 이 고민은 그대로였을 것이다. 결국 이 고민은 숫자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점점 희박해지는 교회의 사명에 관한 문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MVP 선교사들과 선교지에서 어떤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자주 한다.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선교지의 교회 상황은 한국 교회와 비할 바가 아니다. 신앙의 연수는 짧고 규모는 영세하다. 하지만 그 존재 목적은 매우 분명하다.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다.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혹은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한 이익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어져 세상을 구원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조국 교회의 회복을 소망한다.



# 중앙아시아, 중국 신장 권역 개관

## 중앙아시아

일반적으로 중앙아시아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5개 공화국과 중국 서부 신장(新疆)성을 중심으로 한 투르크계 위구르족 거주 지역, 몽골 등을 포함한다. 근대적 의미에서 중앙아시아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가리킨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수도	아스타나	비쉬켁	두샨베	아শ하바드	타쉬켄트
면적	2,717,300km <sup>2</sup>	198,500km <sup>2</sup>	143,100km <sup>2</sup>	488,100km <sup>2</sup>	447,400km <sup>2</sup>
인구	18,360,353('16)	5,727,553('16)	8,330,946('16)	5,291,317('16)	29,473,614('16)
주요 종족	카자흐인 63% 러시아인 23.6%	키르기즈인 70% 러시아인 8.4% 우즈벡인 14.5%	타지크인 84.3% 우즈벡인 13.8%	투르크멘인 85% 우즈벡인 5% 러시아인 4%	우즈벡인 80% 러시아인 5.5% 타지크인 5%
언어	카자흐어 러시아어	키르기즈어 우즈벡어 러시아어	타작어 러시아어	투르크메니스탄어 러시아어 우즈벡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타작어
종교	이슬람교 70% 러시아정교 23% 개신교 2%	이슬람교 75% 러시아정교 20% 기타 5%	이슬람교 90% 기타 10%	이슬람교 89% 동방정교 9%	이슬람교 88% 러시아 정교 9% 기타 3%



## 약사

중앙아시아는 3,000여 년 동안 여러 민족의 이동 및 페르시아, 그리스, 인도, 중국 그리고 이슬람과 같은 거대한 고대 문명들의 교차점이었다. 중앙아시아는 실크로드 및 유목민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대부분이 목축을 생활수단으로 하는 유목민이다.

중앙아시아의 역사를 약술하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아리안 시대로 B. C. 5,000년경부터 B. C. 7세기 경까지의 선사시대와 그 이후부터 A. D. 9, 10세기경까지의 역사시대이다. 둘째, 투르크 이슬람 시대로 A. D. 9, 10세기경부터 A. D. 18, 19세기에 이르는 1,000년간이다. 셋째, 근현대시기로 러시아와 청에 의한 중앙아시아 지배 기간이다. 중앙아시아는 19세기 후반 러시아에 병합되었다.

## 민족

이슬람이 전파되기 전 중앙아시아에 주로 거주하던 민족은 소그드족, 스키타이족, 호래즘족, 알란족 등을 비롯한 이란계 주민이 압도적이었다. 또한 고대 정착민족이었던 타지크인, 파슈툰족, 파미르인 등도 오랜 기간 동안 중앙아시아에 거주하였고, 현재까지도 정착하고 있다. 그러나 투르크계 민족이 이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중앙아시아에는 많은 투르크계 민족이 정착하게 되었다. 이때 들어온 대표적 민족으로 우즈법인, 카자흐인, 키르기즈인, 위구르인 등이 있다. 역사적 전승을 통해 점진적으로 우즈베헤 민족은 정주문화로, 카자흐 민족은 유목문화로 문화의 과정을 거쳤다. 가계나 족보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부족이나 씨족 계급이 이루는 사회 구조가 중앙아시아 사회의 핵심 체계이다.

## 종교

이슬람은 중앙아시아의 민족적 성격을 형성하고 있는 문화 요소이다. 이슬람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조로아스터교나 민간 신앙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슬람의 중앙아시아 진출의 결정적인 계기는 탈라스(Talas) 전투였다. 중국 당나라와 장기간 대립해 왔던 돌궐계(투르크계) 부족은 당나라의 중앙아시아 진출에 반발하여 중앙아시아로 영역을 확장하려는 압바스 왕조를 도와 이 전쟁에 참여하였다. 751년 지금의 타쉬켄트 부근 탈라스강 유역에서 충돌한 결과 아랍 연합군이 승리하였다. 이로써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당나라의 영향력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반면 중앙아시아에서 투르크족을 통한 이슬람의 전파가 가능하게 되었다.

1985년 폐스트로이카(개혁) 정책의 영향으로 이슬람이 점차로 부흥되기 시작했다. 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수피즘 등 전통적 이슬람이고, 다른 하나는 급진적 원리주의 이슬람이다.

중앙아시아는 이슬람문명권에서도 민속(Folk) 이슬람, 즉 생활이슬람의 형태를 보이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는 민족의 전통적 관습이나 생활 의식과 결부되며, 이슬람의 미신적 특징이 강하게 표출되는 것이 그 특성이다.

이슬람 원리주의는 19세기에 중앙아시아에 소개되었다. 이슬람 원리주의는 초기 정통칼리프 시절의 순수한 이슬람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략은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분수령이 되었다. 중앙아시아의 무슬림들은 이전에 금지되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해외 무슬림에 대한 접촉을 통해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슬람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등에 원리주의가 형성되었다. 1991년 독립 이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매우 공격적인 이슬람 포교 전략을 추진하였다.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원리주의는 타지키스탄 내전(1992-1997)을 통해 급진적 성격으로 발전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원리주의자들이 타지키스탄 반군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면서 국제사회에 중앙아시아 원리주의와 그 단체들의 성격이나 목적이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

### 현황 및 기도제목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공산체제에서 자본주의로 전환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어려운 경제 및 독재 정치상황 속에 있다. 중앙아시아는 전체 인구 중 30세 미만의 젊은 인구 비율이 높은데, 이들이 해외 근로자로 나가 벌어들인 외화 송금은 중요한 국가 수입이 되고 있다.

키르기즈스탄은 2016년을 '역사와 문화의 해'로 지정하여 독립 25주년을 기념하였다. 선교적으로도 소련이라는 '철의 장막'이 걷히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중앙아시아에 파송되었다. 90년대 초에는 영적인 아노미 상태에서 부흥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2000년을 넘어오면서 중앙아시아 선교는 안정기 혹은 침체기에 들어섰다. 키르기즈스탄에는 터키로부터 오는 이슬람의 영향이 증대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에서도 젊은 남성층을 중심으로 이슬람이 강화되고 있다. 약 450여명으로 추산되는 키르기즈 한인 사역자의 80% 이상은 수도 비ش켁에 거주하고 있다. 지방에도 복음의 문들이 열리고 현지인 신자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공동체의 압력 속에서도 말씀의 반석 위에 잘 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 중국 신장(新疆)

신장위구르자치구는 중국 내 최대 소수민족 자치 지역으로서 중국 전체 면적의 약 6분의 1을 차지한다. 신장은 1884년 11월 18일 공식적으로 중국(청나라) 영토로 편입되었다. 8개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인종 측면에서 중국 서북지역의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다. 신장은 중국 한족문화가 아니라 위구르 이슬람 문화가 지배하는 지역이다.

우루무치(烏魯木齊)는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로 신장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무역을 담당하는 국제 무역 도시이다.

### '신장'의 의미

'신장'은 새로운 강역 혹은 영토라는 뜻이다. 신장이라는 지명은 청이 신장을 점령한 후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 청은 그 전에는 북신장을 준가르부, 남신장을 무슬림의 땅이라고 불렀으며 고대 중국인들은 신장을 서역이라고 불렀다. 한편 투르크인들은 동투르키스탄이라고 불렀다. 청의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영토인 이 지역에 대해 신장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을 이해할 수 있더라도 그것을 가치중립적인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동양이나 지리상의 발견이라는 말이 서구 중심적이듯이 '새로운 영토'라는 말도 중국 중심의 명칭이다. 신장은 전혀 새로운 땅이 아니다. 그 자체로 오래되고 찬란한 역사를 지닌 곳이다. '신장'이라는 용어는 '미지의 땅, 야만의 땅'으로 치부되었던 땅을 새롭게 문명화시키기 시작했다는 함의를 풍김으로써 실제 신장역사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하다. 신장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이러한 인식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 신장의 이슬람

신장의 이슬람은 중앙아시아 동부지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는 두 지역이 언어, 문화, 지리적 측면에서 상호 유사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에서 신장으로 이슬람이 유입된 시기는 10세기이다. 15세기 중엽에 타림 분지의 오아시스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투르크계 주민들 거의 대부분이 이슬람으로 개종하였으며, 16세기에는 위구르족 대부분이 이슬람으로 개종하였다. 이들의 개종으로 신장 남부 지역의 오아시스 지역은 20세기 말까지 무슬림이 지배적인 지역으로 남아있다. 반면에 북쪽 지역의 도시들은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청나라와 중국 공산당 정부의 영향으로 다문화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현재 신장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적, 문화적 충돌은 194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대규모 한족 이주정책에서 출발한다. 이들이 신장으로 이주하면서 신장지역의 문화, 언어 그리고 전통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중국은 한족의 이주와 한족의 경제권 장악으로 신장 지역을 한족 문화권으로 통합시키며, 이를 통해 위구르의 이슬람 정체성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 현황 및 기도제목

내재 되었던 위구르족과 한족 간의 민족적 감정이 2009년 우루무치 7.5 사태로 터지면서, 신장의 긴장과 정치적 감시는 더욱 강화되었다. 민족 간 분열과 상처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기를, 또한 강화된 감시체제 속에서 압력을 받는 사역자들에게 성령님께서 힘과 능력 주시길 기도하자.

한편 위구르족, 카자흐족은 깨어진 가정이 많고, 진학, 취업, 승진 등에서 계속적인 민족 차별과 기회 박탈을 겪으며 삶의 의욕을 잃은 경우가 많다. 이들이 그리스도 안의 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위구르족이 많이 거주하는 남신장과 카자흐족이 거주하는 북신장 이리 등 여러 지방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지방은 외국인이 방문할 경우 바로 정부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역이 쉽지 않으나 최근에 한족 사역자들의 부상이 눈에 띤다. 선교 중국으로 일어서고 있는 한족 사역자들과 한인 사역자들 간에 좋은 동역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이채문. 『공간으로 읽는 중앙아시아』.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2012.  
임형백. “중앙아시아 5개국의 형성과 분화.” 『아시아연구』 17(2) (2014): 153-178.  
정세진. “중앙아시아 지역연구와 선교 전략: 문화와 종교적 특성을 중심으로.” 『선교신학』 31 (2012): 293-328.  
중국신장도시연구동우회. 『신실크로드의 심장 우루무치』. 2008.  
황병하. “신장의 이슬람역사와 중국의 대 이슬람 정책.” 『한국중동학회논총』 30(1) (2009):107-140.



# W족 A 이야기

## 끝없는 절망 속에 소망되신 예수님

A는 남편이 다니던 학교 식당 조리사인 M의 누나이다. W 사람들이 그렇듯이 친구를 사귀고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M이 우리 가족을 초대했고, 그의 작은 월세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만난 A는 매우 수줍음이 많았다. 사실 그냥 수줍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집 안에 들어섰을 때부터 떠날 때까지 눈 한번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무슬림 여자들이 외부인, 특히 남자들을 경계하는 습관이 있다해도 A는 그 도가 지나쳐보여서 우리에게 별로 호감이 없구나 생각되었다.

얼마 후 우리 가족이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 A가 메일을 보냈는데, 우리 가족을 만나서 기뻤고, 한국에도 배우고 싶고 친구 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첫인상과 달리 적극적으로 메일을 보낸 것이 무척 의외였다. 간단한 답장을 보냈는데 계속 반송이 되었다. C국 정부가 해외에서 그 지역에 사는 W인들에게 보내는 메일을 차단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때문인 것 같다.

다시 C국으로 돌아와 대학 언어 과정에 다니게 되었는데, 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무척 낮이 익은 여자가 있었다. 내 기억이 맞나 싶어 망설이다 아는 체를 했는데, 바로 4년 전 딱 한번 만났던 A였다. 한 번에 알아본 내 기억이 신기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나니 무척 반가웠다. A도 나를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오늘 나에 대해 생각했었다는 얘기를 했다. 딱 한 번 만난 나를 4년 만에 떠올렸다니 믿기 어려운 말이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시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집으로 초대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나눴다. 석사 학위가 있는 A는 교사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마침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의 교수를 만나러 왔다고 했다. 6개월 전 엄마의 뇌경색 발병 소식을 듣고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 정성껏 돌봐드렸지만 결국 돌아가셨다. 그 충격에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보다 못한 가족들이 이래선 안되겠다 싶어서 자신을 도시로 옮겨 보냈다고 한다. 돌아가신 엄마 얘기를 하며 계속 눈물을 흘렸다.

이후로 A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우리 집을 찾아 왔다. 4년 전 우리가 방문했을 때 주었던 성경을 그 동안 엄마와 함께 읽었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엄마가 성경 읽는 것을 무척 좋아하셨다고 한다. 현재 W어 성경은 구약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만 있고 신약은 모두 번역 되어있는데 아마도 A는 엄마에게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복음서 일부분을 읽어드린 것 같다. 제법 신앙심이 깊은 W 무슬림 중에는 복음서는 내용이 변질되었고 기독교인들의 책이기 때문에 읽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A의 어머니가 복음서 읽기를 좋아했다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나는 A에게 W어를 배우면서 신약 성경을 함께 읽어 나갔다. 요한복음부터 시작하여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순서대로 하루에 두 장씩 읽어나갔다. A가 먼저 읽고 나서 단어 및 문법 설명을 하면 내가 다시 읽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성경을 읽는 시간 외에는 A의 상황을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당시 A는 대학원 시절에 과외를 했던 학생 집에 머물고 있는데, 그 학생들은 터키로 유학을 가 있다고 한다. 자녀들을 외국으로 유학 보낼 정도이면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일테지만, 그래도 옛날 과외 선생을 돈도 받지 않고 집을 제공해주니 고마운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며칠 후 A는 그 집에서 나와 친구 월세방으로 숙소를 옮겼다. 그분들의 집에 지방에서 손님이 찾아오게 되면서 머물 방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A가 과거 이야기를 털어 놓았다. 자

신이 3년 동안 그 집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동안 과외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과외비를 주지도 않고 또 요구하지도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으니,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통사정 해서 수락하긴 했지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민망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돈이 많은 사람들인데 자신을 이용했다면서 스스로 바보스럽고 후회한다며 분노했다.



정기적으로 우리 집에 오는 시간이 계속 되면서 머물 곳이 없어서 가방 하나 들고 이집 저집 떠돌아 다니고 있는 A의 어려운 상황들을 속속들이 알게 되었다. 남동생 M이 얼마 전 결혼해서 월세집을 얻어 살고 있지만, 신혼부부인 동생 집에서 계속 지내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듯 했다. 또 C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예민하고 특히 소수민족이 많이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서 현지인이 외국인의 집에 머무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관할 파출소 직원들이 비정기적으로 찾아와서 혹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지 감시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A가 이집 저집 떠도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우리집에 머물라고 말할 수 없었다.

남편과 나는 A의 상황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었다. 일단 직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니 잠시라도 저렴한 숙소에서 머물면서, 안정된 직장을 찾게 되면 그 때 원하는 아파트를 구하는 게 어떠냐고 조언을 했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타고 낯선 사람과 어울리기 힘들어 하는 A는 6-8명이 방 2-3개 있는 아파트에서 여러 개의 이층 침대를 놓고 지내는 열악한 곳에서 살기를 원치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소위 말하는 유명 대학의 교사 자리만 원하는 A의 태도였다. 사실 소수민족인 A가 전문대학의 시간 강사 자리를 얻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다. 각종 관계와 뒷문, 무엇보다 돈이 없으면 초등학교 교사도 할 수 없는 이 지역 상황에서 석사 학위 하나만 갖고 4년제 대학의 강사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바램이었다. 여러 대학에 이력서를 냈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고, 또 알아보려 가면 모멸감 찬 거절을 받고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면서 A는 더 욱더 우울해져갔다.

보다 못해 남편과 나는 A의 구직에 대해 조언해 줄 W 친구들 몇 명을 함께 만났다.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장을 만났는데, 이 사장이 A를 보자마다 대뜸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느냐며, 이런 태도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내 친구 중에 A와 같은 고향 출신인데다가 같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신문사에서 번역 일을 하고 있는 친구도 같이 만났다. 그 친구 역시 A를 보자마자 어둡고 우울한 표정을 지적했다. 현재 이 지역 상황에서 취직을 하는데 대학원 석사 졸업장은 아무 소용없다며, 일단 돈을 벌어서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니 약국이나 큰 마트에서 일자리를 찾으라고 했다. A가 요구하는 직장의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냉정하면서도 현실적인 조언이었다(이 곳에서 약국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약사 면허증이 없어도 취업할 수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 부부는 외국인으로서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보다는 이곳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경험많은 선배들을 만나게 해줌으로 A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A는 이들을 만나면서 자존심이 상했고, 자기가 그런 일 하려고 석사까지 졸업한 것이 아니라며 화를 냈다. 지금까지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많은 사람들 특히 학교의 교수님들을 거론하면서 자기 안의 분노를 쏟아냈다. 자신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이유 없이 자신을 무시하고 오히려 이용하고 마땅히 주어야 할 도움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이렇다고 하면서.



이리는 가운데 A는 머물 숙소가 없으면 버스를 타고 4-5시간 걸리는 고향에 내려갔다가 또 잠시 묵을 곳이 생기면 돌아오곤 했다. 왕복 교통비도 만만치 않을 터인데. 어느날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 늦은 시간에 갑자기 A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금 버스 터미널(우리 집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인데 방금 고향에서 올라왔단다. 오늘 밤에 잘 곳은 있느냐고 물었더니 대학교 근처 쌈 여관에서 묵으려고 한단다. 이 늦은 시간에 다시 한 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여관을 찾아 간다니 말도 안되는 얘기였다. 일단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더니 절대로 폐를 끼칠 수 없다며(A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여관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러면 도대체 왜 나에게 전화를 한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말은 그렇게 해도 내심 우리 집에 오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도 되고, 여관에 가는 것이 걱정도 되어서 당장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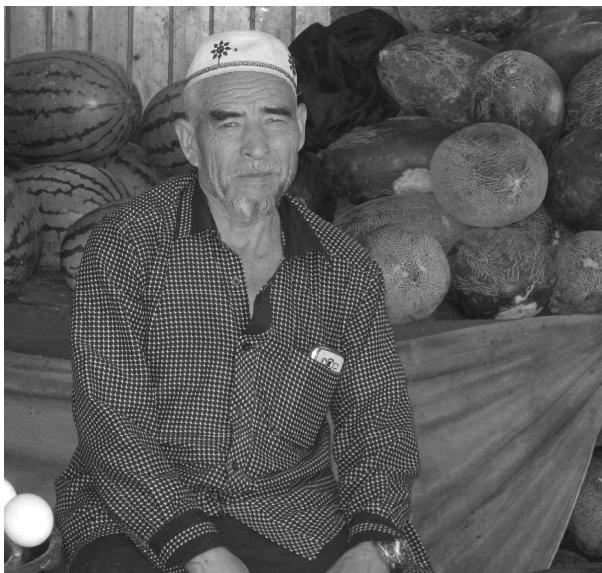
A가 우리 집에 머무는 며칠 동안, 함께 성경을 읽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었기에 A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담당교수의 전횡과 무시 속에서 여러 좋은 기회를 놓친 것, 좋은 직장도 그만두고 엄마를 간호했던 것, 엄마가 돌아가시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몇 달 동안 명하니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던 것 등. 여전히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며 우울한 감정에 빠져드는 A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이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라는 생각이 재차 들었다.

A가 우리집에 머문지 며칠 지나면서 나와 남편도 조금씩 불안해졌다. 수시로 유동인구 조사를 하러 왔다 갔다 하는 파출소 직원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랐기 때문이다. A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루는 A가 외출했다 들어오는데 아파트 단지에 파출소 직원이 서 있는 것을 보고는 혼비백산하여 집으로 들어와 당장 짐을 쌌다. 자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없다면서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었다. 우리 역시 그냥 더 있으라고도, 편히 가라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집을 떠나면서 A는 우리가 자신에게 조언이라고 해준 말들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고는, 머물렀던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100위안(한화 2만원 정도)을 식탁에 놓고 잽싸게 현관을 나섰다. 나는 그동

안의 관계를 이렇게 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A의 태도에 섭섭하고 화가 나서 "이 돈을 받으면 너와 나의 관계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다시 손에 쥐어줬다.

서로에 대한 오해와 섭섭함 속에 몇 주가 흘렀는데, A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문자도 보내보고 전화도 걸었는데 도무지 답이 없었다.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 되는 동시에 이런 피곤한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것인가, 과연 A가 하나님이 불여주신 사람이 맞는가 회의가 든 것도 사실이다. 겨우 연락이 닿아 집에 초대라도 하면 전화기가 고장이 났다든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못오게 되었다는 변명을 했다. 온다고 해서 저녁 식사도 준비했는데, 아무 연락도 없이 오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나는 지치고 화가 났다. 이제는 A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결해주신 영혼이라는 믿음으로 도움을 주고자 했지만, 이렇게 지지부진한 관계로 힘을 빼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 같았다. 이 친구에게 쏟을 에너지로 다른 새 친구를 만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마음도 들고.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저녁 식사 초대를 했다. 그것이 작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이었다.

오후 4시까지 온다고 했는데, 5시가 넘도록 오지 않



았고, 전화를 걸어도 문자를 보내도 아무 답변이 없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록 연락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문자를 보냈더니 곧바로 답변 문자가 왔다. “내가 그렇게 시간관념이 없는 사람은 아니예요. 폐를 끼쳐서 미안해요. 지금 버스에서 내려서 선생님 댁으로 가고 있는데 다시 기숙사로 돌아가겠어요.” 7시가 다되어가는 시간에 이런 문자를 받으니 황당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면 그러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가족들과 식사를 하러 나가는데 아파트 현관을 들어서는 A를 만났다. 어이가 없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어쨌든 식당에서 같이 국수를 먹고 집으로 함께 왔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돌아가기 어려우니 우리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다.

그날 밤, 나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A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하리라 결심을 했다. 비록 복음서를 함께 읽기도 하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나의 일방적인 설명에 불과했지 이에 대한 그의 생각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었다. 우선 올해 가장 감사한 일에 대해서 적어보자고 했다. 제일 첫 번째가 나를 다시 만나게 되고 함께 성경을 읽은 것이라고 했다.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알라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으며, 우리 가족으로

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던 일,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 가족들이 건강한 것 등 한참 동안 10가지가 넘는 감사 내용을 적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이 친구로 인해 속상하고 답답했던 내 마음도 조금 풀렸다.

내년의 소망을 적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직장을 얻는 것, 아버지의 건강.... 나는 이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성경이 단지 감동적인 좋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 천국에 갈 믿음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모든 물음에 대한 A의 대답은 ‘아니오’였다. 자신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될 수 없으며, 예수는 선지자일 뿐이라고 했다. 또 자신은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다. 성경은 좋은 책이기 때문에 계속 읽고 싶다고 했다.

쩝쩝하거나 슬픈 마음이 들지는 않았다. 그냥 할 일을 했다는 생각이었다.

시간이 흘러 A와 다시 만나고 있다. A는 여전히 직장을 구하고 있고, 지내는 곳이 불안정하다. 나는 다시 A와 성경을 읽어 나갈 것이다. 이번에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하려고 한다. 복음서의 한 부분을 읽고 A가 그 내용을 W어로 스토리텔링하면, 그것을 녹음해서 내가 연습하고 다시 A에게 들려주는 과정을 통해 나는 W어로 복음서를 잘 설명할 수 있게 되고, A는 복음서의 내용을 여러 번 들으면서 그 안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주님, A의 눈에 있는 어두움이 떨어져서 밝은 빛을 보게 하시고, 그 마음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주소서!”



# 공동체의 유익과 풍성을 지향하는 리서치

2016년 리서치 여정

**시작은 이랬다.** 2014년 이라크에서 시작된 IS의 갑작스러운 세력 확장과 그들이 저지른 만행은 선교에 대한 관심과 선교사 지원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선교상황에 많은 충격과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 국한될 줄 알았던 IS의 테러와 도발은 전세계를 향한 것으로 변했지만, 사실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기독교 선교가 시작된 이래 복음전도와 각종 형태의 사역을 기반부터 혼들고 부수며, 선교사들의 생명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뜨리고 앓아가기까지 한 사건들은 늘 있어왔다. IS가 잠시 선교사를 두렵게 하고 운신의 폭을 좁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꽃같은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이다.

17년의 역사를 가진 MVP선교회의 여러 선교사들도 그동안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이란에서, 시리아에서 하루아침에 추방되어 또 다른 선교지를 찾아 나서야 했다. 그들은 추방되었다고 해서 종족과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무모할 정도의 열정으로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동일종족을 찾아 나섰다. 하나님의 선교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2014년 본부 사역자 몇 명이 모여, 이런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MVP선교사들의 개척스토리를 모아 보자고 했다. 우리는 스토리를 읽는 사람들이 미전도종족선교와 전방개척 선교를 왜 끊임없이 외치고 지향해야 하는지 알게 되고, 함께 사역하고 있는 모두에게 도전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어떻게 스토리를 모을까?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까? 어떤 내용을 들을까? 고민이 시작되었다. MVP가 타겟하는 권역의 초기 선교사들 중 6명의 개척스토리를 듣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 일은 리서치선교사역개발원(리사원)이 맡아서 진행하고 마무리까지 하기로 했다.

시간이 흘러... 이렇게 변했다. 2014년 10월에 첫 인터뷰가 시작되고 두 번째, 세 번째 인터뷰가 진행될 수록 우리가 들으려 의도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선교사들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질문들을 스스로 생성해내서 더 깊이 있고 더 다양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길 원했다. 시간이 지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걸러내고 남은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빼아픈 현재의 상황과 그 속에서 발견하는 은혜와 기쁨, 그리고 지금 지나고 있는 광야와 같은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다. 애초 6명의 스토리만 듣기로 했는데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가능하다면 모든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되도록 모든 이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단순한 의도를 가지고 기획되었던 이 일은 구체적인 형식을 세워놓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기에 더 편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디브리핑이 되었다. 현장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선교사를 파송한 단체라면 꼭 해야 했던 일이었는데 전문가도 없고 경험도 없었기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2016년 12월말 현재 국내에 들어온 선교사와 현장을 방문해서 인터뷰한 선교사가 총 55명이다. 2년 넘게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쌓인 이 많은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들의 이야기가 본부 정책과 멤버케어에 어

떻게 반영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2012년 정식으로 발족한 리사원은 2012년 북인도 무슬림, 2013년 MVP선교사 사역현황 조사(설문조사), 2014년 이란과 터키의 쿠르드족 리서치를 실시했다. 2015년에는 2014년에 시작된 개척스토리 수집과 선교사 인터뷰에 집중했다.



2016년 현장 리서치를 위해 몇 개 지역을 놓고 고민하고 있을 때, 리사원에 리서치를 함께 하자고 제안한 선교사가 있었다. 그곳에는 단기선교사를 포함하여 MVP선교사 6 유닛이 사역하고 있다. 요청한 리서치 주제는 첫째, A지역 미전도종족 복음화를 위한 바람직한 팀 구성은? 둘째, A지역 미전도종족 복음화를 위한 팀 사역은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하는가?였다. 인터뷰를 했던 거의 모든 선교사들이 토로한 어려움인 팀워크와 팀사역에 대한 주제이긴 했지만 쉽사리 접근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기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 몇 차례 회의를 하면서 우리는 그 주제에 대한 전문지식은 일천하지만 현장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들어주면 뭔가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리서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리서치는 A와 B지역, 두 곳에서 진행되었다. 대부분 한 팀 이상된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A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사역자 유닛 수가 비슷하지만 이제 팀빌딩을 시작하는 B지역은 비교연구도 가능할 것 같았다. 그뿐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어지고 있는 팀에게는 다른 팀의 사례가 실제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이번 현장 리서치를 준비하면서 2주라는 짧은 기간에 두 나라 두 도시를 방문해야 한다는 것과 서로 다른 성격의 두 팀을 만나야 한다는 면에서도 심적인 부담이 커던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선교사들이 치열하게 살고 있는 삶과 사역 현장을 직접 밟아보며 그곳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결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분명하게 드러나되 격려하고 다독이는 결과가 되어지길 ... 2016년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 현장 리서치는 은혜 중에 마쳤다.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선교사들이 쏟아내는 이야기는 무겁고 마음 아팠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민하게 하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알고 싶어했고, 기질과 성향이 다른 서로를 견뎌내고 싶어했고, 하나님의 몸의 각 부분을 이루는 동역자들이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몸을 풍성케 하고 유익하게 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나누었다.

현장에 다녀온 후 4개월이 흘렀다. 정리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지만 이런 작업을 통해 현장 선교사들이 미진도 종족 사역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진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기쁨으로 하고 있다. 일차적인 목표는 2017년 3월까지 두 지역 리서치 결과 정리를 마치는 것이다. 이 후에는 이를 더욱 보완하여 6월 지역디렉터 모임과 올해 새롭게 사역을 시작한 멤버케어 위원회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이 MVP 본부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라고 현장 선교사들과 본부와 의사소통의 간격을 줄이는데 있다. 현장에 가서 선교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어찌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일이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현장 이야기\_전해솔 연구원(리사원)

2016. 9. 11. Sun @Mega

# 카자스탄 청년들의

## 꿈과 소망

DREAMS & HOPE

### 중앙아 밭에 소망의 씨앗 뿌리는 초보어부 이야기

현장에 나가기 전부터 마음이 들뜨고 부산스러웠다. 리서치 팀이라 인터뷰가 주 사역이었지만, 언제나 마음에 품고 있던 지역이기에 중앙아시아 땅의 영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다.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사영리를 챙기고, 예쁜 말씀카드를 사서 한국파자와 사탕, 작은 필기구들과 함께 간단한 선물꾸러미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어떻게 사람을 낚을까? 궁리해보았다.

#### ‘긴장과 매력이 공존하는 땅, 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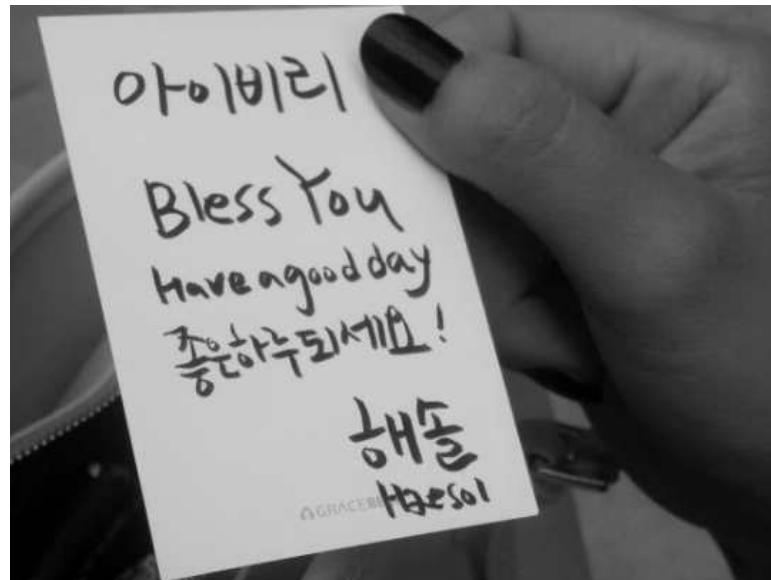
신장은 지역 특성상 감시가 촘촘하고, 몇 차례 대대적인 사역자 추방사건도 있어서 대놓고 복음을 전하기는 어려웠다. 거리에서 지나치는 영혼들을 보며 속으로 기도할 수 밖에 없었지만, 신장사범대에서 만난 한족친구 왕이페이에게는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주셨다. 사범대는 우리가 머물던 도시 북쪽의 숙소에서 버스로 3정거장 떨어진 곳에 있어서 인터뷰가 일찍 끝난 저녁에 가보았다. 혼자 찾아가는 길이지만 걱정하기보다는 단어장에 신장따쉐(新疆大學) 한자 하나 적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찾아갔다.

캠퍼스에 들어가려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검사하고 있었다. 마침 여권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방명록에 이름을 쓰고 들어갈 수 있었다. 혼자 캠퍼스를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아 기도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침 옆 벤치에 앉은 친구의 표정이 슬퍼 보여서 다가가 말을 걸었다. 처음에는 전공과 취미를 묻는 등 간단한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얘기해 주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얘기해보라고 말했다. 친구는 "오늘 마음이 우울했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 같다"며 고마워하며, 건내 준 <하나님의 선물: 영생> 전도지를 받아갔다.

도시 남쪽에 위치한 신장대에는 신장사 범대에 비해 중앙아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았다. 주로 한족 학생들이 많은 북쪽 지역에 비해 도시 남쪽은 위구르인들의 전통 시장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 거리에는 전통 스타일의 옷차림과 머리 모양을 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계열의 민족들이 눈에 많이 띠었다. 정말 신장이 유목민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중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것이 눈으로 확인되었다. 그래서인지 우루무치 공항에서는 러시아 시베리아로 어학연수를 떠나는 중국 카자흐 학생들을 만났다. 한국인이라고 하니 "런닝맨!"을 외치며 반가워했다. 그 중 차드라는 친구는 한국어도 조금 할 줄 알았다. 내년에 한국에 올 수도 있다고, 한국에 오면 보자고 했다.

신장은 짧은 기간 머물렀음에도 정치적인 역압이 커서 놀리는 느낌이지만, 지리적으로 중앙아 8개국과 접하고 있어 여러 나라에서 온 유학생과 상인들이 많았다. 폐쇄적이면서도 개방적인 오픈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땅이었다.



### '해맑은 미소를 짓는 청정자연의 나라, 키르기즈'

중앙아시아로 넘어오니 신장에 비해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가 확연하게 느껴졌다. 키르기즈 자연처럼 순박하고 해맑은 웃음으로 맞이해 주던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다. 인터뷰 일정이 빠빠해서 따로 시간을 내어 캠퍼스를 방문할 기회가 없었는데 다행히 마지막 날 자유시간이 주어져 잠깐 짬을 내어 비쉬케 시내에 있는 대학을 가볼 수 있었다. 가는 길에 '만나야 할 영혼을 붙여주세요' 기도하고 만난 친구 아이비리는 동시통역사를 꿈꾸는 영어를 잘하는 대학생이었다. 예수님을 전했더니 학교에 크리스천인 친구가 있어서 교회에 2번 정도 가봤다고 한다. 기독교에 대해 별다른 거부감은 없지만, 자신은 무슬림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시간이 촉박해서 캠퍼스는 대문을 찍고 오는 수준이었지만, 오가는 길 아이비리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았다.

### '광활한 카자 땅에서 만난 다양한 영혼들'

카자스탄에서는 알마티의 한 쇼핑몰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복음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MEGA라는 큰 복합 쇼핑몰이 있는데 푸드 코드에 홀로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좋았다.

보통 질문은 "당신의 꿈과 소망은 무엇인가요?"로 시작했다. 몇 가지 질문을 카드에 적어서 간단한 인터뷰 형식으로 구성해보았다. 꿈이 뭐냐고 물으면 그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세상의 진짜 소망인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

기에 이 주제로 말문을 떴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물어보고 적당한 때에 예수님에 대해 나누거나 전도지를 주었다. 만났던 이들 중에 기억에 남는 세 친구(마지나, 빅토리아, 쿠릴라이)를 소개한다.



슬레이만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마지나는 아프간에서 태어났지만 전쟁을 피해 우즈베키스탄에서 살다가 카작족으로 온 지 5년째이다. 아버지는 카작족, 어머니는 아프간족이다. 꿈은 법률가가 되는 것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예수님은 선지자이며 좋은 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예수님은 선지자일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소개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다. 성령님께서 마지나에게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법률가가 되어 아프간과 카작의 지친 영혼들을 정의와 진리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친절하면서도 소신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던 선한 인상이 오래 기억에 남았다. 마지나에게 또 다른 전도자를 붙여주시거나, 꿈과 환상 가운데 말씀해달라고 종종 다시 기도하게 된다.

두번째 친구 빅토리아는 러시아정교 신자면서 건축사이다. 민족을 물어보니 우즈베키스탄, 카작, 러시아, 독일 등 8개 종족의 혼혈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믿지만 성당에는 일년에 한두번 가고,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하지 종교적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카작스탄 인

구의 약 23%는 러시아정교인데, 대부분 러시아(슬라브)계 사람이다. 그렇지만 정교회 신자는 빅토리아처럼 절기 때나 결혼식 같이 특별한 날에만 성당에 가고, 러시아계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종교도 러시아정교라고 말하는 문화적인이고 민족적인, 명목상의 신자가 많다.

마지막으로 화학을 전공하는 쿠릴라는 카작족이다. 카작족인만큼 자신은 무슬림이지만 특별히 종교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은 없다고 했다. 쿠릴라는 아는 동생 굴렌을 온라인으로 소개시켜주었다. 15살 굴렌은 한국을 좋아해서 혼자 한국어를 배웠다. 종종 카톡으로 “언니 뭐해?” 하고 말을 건다. 카작에 오면 자신의 동네에 놀러오라고 했다. 참고로 굴렌이 사는 약타우는 알마티와는 무려 3,340km나 떨어져 있는 카스파해 인근도시다. 쇼핑몰에서의 짧은 인연이 이렇게 확장됨에 감사했다.

### ‘현장에서의 시간을 돌아보며’

사실 부산스러웠던 준비에 비하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진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크지만 영혼을 만나며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시도할 때 여러 깨달음을 주셨다. 어부는 물고기가 미끼를 물면 적당한 때에 줄을 당겨야 한다. 중앙아에서는 ‘한류’라는 매력이 미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소재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쉽지만, 계속 연예인 얘기만 하면 영양가 없는 수다로 끝난다. 적당한 타이밍에 복음으로, 진리로 당겨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 속에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선물꾸러미들을 챙기는 노력도 좋았지만, 기도로 더 준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그래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중인 되리라~”라는 찬양가사처럼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일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다.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도 잠깐이라도 함께 이 친구들과 중앙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 가방. 공감. 나눔

## 여행 가방을 꾸리는 것

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책가방을 꾸릴 때에도 굉장히 설렘과 기대가 있었지만, 첫 소풍 가방을 챙길 때의 흥분과는 비교할 것이 아니다. 아마도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보내게 될 시간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이지 않을까? 되짚어보니 이번 리서치는 결혼 전에 다녀오고 거의 15년 만에 다시 가는 현장 리서치이다. 여행 짐이 다 비슷하지만 가족여행이나 회의 참석을 위해 짐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여하고 있는 사역의 일환으로써, 말하자면 '출장'을 간다고 생각하니 경력 단절 주부가 다시 일에 복귀하는 기분이 한껏 든다. 우리 단체의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집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일하고 있을까 직접 찾아가서 만나보게 되다니. 저절로 기대감이 솟아오른다.

지난 한 해 동안 리서치선교사역개발원(리사원)에서 사역을 하면서 특히 중점적으로 맡았던 부분이 현장 사역자들의 심층 인터뷰였는데,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사역자들과 한국을 방문하는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듣는 것이다. 이 인터뷰의 처음 목적은 17년을 지나온 MVP의 개척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지만,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모여질수록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개척자의 마음으로 미전도종족에게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그래서 결국은 MVP 전체 사역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 현장 리서치 역시 중점을 둔 부분 중 하나도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덕분에 이번 여행 가방도 여느 때와는 다르게 꾸려졌다. 그간의 리서치 여행에서는 노트북과 녹음기 외에 몇 권의 책과 자료 조사 파일, 여러 종류의 수첩과 필기구 그리고 인터뷰 대상자를 위한 간단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번 짐에는 수많은 종이들 자리에 김과 건어물, 아이들을 위한 과자들이 자리 잡았다. 우리 사역자 한 가정 한 가정을 생각하며 깜짝 선물을 준비하면서 연신 콧노래를 부르며 짐을 챙기면서도 개인 짐 넣을 자리가 점점 없어져 가니 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살짝 들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는 팀원들에게 고마웠다.

## 공감이 주는 위로

국내 사역을 1년 반 넘게 하고, 지역 교회에 출석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 보니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맞장구를 쳐주며 웃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 의견도 살짝 표현하면서 지내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면서도 삶의 귀한 모습인 것을 인식하게 된다. 한국교민이 거의 없는 곳에서 10년 넘는 시간을 보내며 두 아이를 낳고 키운 나로서는 사역에서 오는 기쁨과 보람이 감사하고 좋았지만, 비슷한 처지에서 무심하게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 아쉬웠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몇 시간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니 MVP 사역자의 이야기를 듣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낯설고 폐쇄적인 좁은 사회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잠시 그 상황을 벗어나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문화 안에서 자신의 상황을 이해받으며 터놓고 얘기하는 기회가 되었다. 외형은 공식적인 인터뷰인데, 내용은 한 사역자의 일대기를 되짚으며, 질문을

던지는 입장과 대답을 하는 입장이 다른 지역과 상황에 머물러 있지만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의 공감의 시간이 되었다. 인터뷰가 끝났을 때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피드백을 했고, 다시 한 번 한 공동체 안에서 갖는 유대감과 같은 길을 가는 동질감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이 깊어졌다.



이번 리서치는 본부 팀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각 사역자의 일 이야기와 생활 이야기, 어쩌면 마음 속의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니 기대도 되지만 많은 부담이 느껴졌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각 현장으로 흘어져 살다보니 4년에 한 번 열리는 총회에서 겨우 만나거나 그마저 특별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면 거의 7-8년 만에 얼굴을 보는 경우도 있으니 서로 안부를 궁금해하고 위해주고자 하는 애틋한 마음은 있지만 절대적인 교제의 시간이 부족하고 어렵기만 하다. 특별히 이번 여행은 현장 사역자가 가장 많은 두 지역을 중점적으로 방문하게 되었다. 중국 신장성의 우루무치시(市)와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스탄의 비쉬켁시(市)였는데, 비록 중국과 중앙아시아라는 지역적 구분은 있지만 중국 신장성 역시 투르크계 민족 문화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어서 곁보기로는 여느 중앙아시아의 대도시를 연상시켰다. 하지만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신장은 한족과 생김새뿐만 아니라 종교와 생활문화도 확연하게 다를뿐더러 정치적인 분립을 원하고 있는 지역이기까지 하니 중앙정부의 통제와 감시가 일상생활 깊숙이까지 침투해 있어 단기 여행객인 우리 팀에게까지 긴장감이 전해질 정도였다. 이에 반해 한창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사회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키르기즈는 비록 경제수준은 아직 낙후되어 있지만 활기와 자유가 느껴졌다.

## 나눔의 기쁨.

### 전해솔 연구원

선교 현장을 방문해서 신앙적인 면에서나 사역적인 면에서 대선배이신 분들의 10년 넘는 사역을 농축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처음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단기 여행을 가서 현장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중앙아시아권 선교라든지,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 사역을 바라보는 거시적인 관점을 키워나갔다면, 이제 선교 단체 사역에 참여하여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선교단체 내부적 관점에서 팀형성과 팀웍에 관해 리서치를 진행하고, 역시나 같은 관점에서 타단체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선교사역에 대한 미시적이고 실제적인 구상에 필요에 대한 많은 영감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현장 사역자 중심의 리서치였지만, 현지 영혼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여행을 준비했다. 생각보다 바쁘게 일정을 소화해야 해서 현지 젊은이들을 만나는 것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짬을 내어 우루무치와 비쉬켁의 대학을 방문하고 몇 명의 영혼이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 특히 카작에서는 마침 큰 쇼핑몰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좀 더 많은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 윤정 연구원

실제 현장에 와서 인터뷰를 진행하다보니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 많았다. 특히 우루무치의 경우 중

양 정부가 소수민족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거리 곳곳에 감시 카메라를 마련하고, 특정 아파트 단지에 많은 CCTV를 설치해서 대여섯 개의 감시 카메라를 거쳐야 겨우 출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사역자들의 활동환경이 좁아지고 운신에 제약이 큰 것이 실제 사역에도 반영되고 있었다. 그로인한 마음의 부담과 스트레스가 인터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많이 중보하고 예배에 집중하면서 나가갔다.

키르기즈에서 우리 단체 김순심 선생님이 개척한 현지 교회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 무엇보다 현지인들과 리서치로서 인터뷰를 하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에서 오는 기쁨이 있었다. 특히 현지인 전도사님이 우리를 집으로 초대해 주셔서 육체적으로는 피곤했지만, 간증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한다는 것이 참 좋았다.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 사역을 해나가지만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결국은 우리가 할 일이고 그 일에서 가장 깊은 기쁨을 느끼게 된다.

### 김인애 원장

이번 리서치는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서로 인터뷰한 내용을 그때그때 충분히 나눌 시간적, 체력적 여건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 특히 사회적인 긴장이 심한 선교 현장에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 일정을 마치면 몸은 너무 피곤해서 쓰러지는데 마음이 힘들어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감정 소모와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커졌다. 4명이서 힘든 일정을 함께 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성숙한 신앙의 자세로 풀어나가는 좋은 팀이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한다.

신장과 키르기즈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며 여러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려움에 물러서거나 현실에 안주하려 하지 않고 끊임 없이 앞으로 나가려는 모습을 보았다. 팀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대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성숙한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많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고 배워지는 것들이 있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좋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다.



#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

리서치를 하다보면 많은 만남들이 있다. 이번 리서치에도 MVP 선교사님들 외 타교단과 단체에 소속된 여러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이번 리서치 기간에 만난 선교사님들 중 기억에 남는 몇 분을 소개한다.

## # 1. 연합의 정신으로

K선교사님은 60세의 늙은 나이로 선교지에 오셨다. 인터뷰를 위해 선교사님을 방문했을 때 80대 은발의 선교사님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교용 건물을 짓는 공사를 손수하고 계셨다.

“서로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고 협력하자 하면 안 되겠다, 내가 가서 협력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내가 개척한 교회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 개척한데 가서 도와주려고 마음먹었죠.”

K선교사님은 인터뷰 내내 ‘연합’과 ‘협력’에 대해서 강조하셨다. 보통 한인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개척한 교회는 선교사 본인이 소속된 교단배경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나라는 90년대 초반에 오신 몇 분의 한인 선교사님들이 ‘각자의 교단을 세우지 말자’고 합의하였다. 지금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교파 구분 없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K선교사님은 초기 개척 멤버 중 한 분으로서, 연합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다. 선교사님 정도의 연륜이면 ‘나’를 내세우고 당신의 사역을 자랑하실 법도 한데, 겸손히 현지인들을 섬겨야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선교사님께 앞으로의 사역 계획에 대해서 묻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있어야죠. 말이 통하는 곳에 가서 마지막 복음 전하다 가야지 하는 생각은 많은데. 저는 무기한으로 영주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처럼 움직이기가 힘들더라고요, 하나님께 죄송해서.” 선교사님의 기도제목처럼 주님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역하시기를 소망한다.

## # 2. 사랑, 그 현실은

“무슬림들은 거짓말을 잘 합니다. 그리고 탐나는 물건이 있으면 몰래 가져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기란...”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의 말이다. 이런 무슬림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다. S선교사님은 사역에 쓸 용도로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집을 탐낸 현지인 몇 명이 선교사님을 집에 감금하고 죽도록 구타하였다. 뒤늦게 경찰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황한 그들은 선교사님을 쓰레기장에 내다버리고 도주하였다. 그 사고로 선교사님은 일 년 반 동안 치료를 받아야했다. 육신의 상처뿐만 아니라 선교사님과 가족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와 충격을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까웠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다. 지역을 바꿔가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이어가고 계시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 명의로 된 선교 센터를 다른 선교사님이 사용하도록 흔쾌히 내어주셨다. 자신을 죽음까지 몰고 간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하고 섬기신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랑과 그 현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 # 3. 관문도시 선교전략으로

J선교사님은 한국에서 고등학교만 마치고 선교지로 일찍 나온 케이스다. 현지 국립대에서 언어학을 전공한 선교사님은 외모도 현지인과 비슷하고 언어 실력도 탁월하다보니 아무도 외국인이라 의심하지 않는다. 1993년부터 여러 차례 그 땅을 리서치 하였고, 파송 전에 이미 사역할 도시를 선정하고 들어왔다. 이는 파송 교회가 이 국가의 주 종족을 입양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관문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이슬람 지역, 특히 중앙아시아는 지방으로 가면 다 KGB가 따라 붙어요. 지방으로 가면 선교사 신분이 완전히 드러나죠. 그리고 현지 신자들과 접촉하면 ‘기독교인이다’해서 바

로 추방 명령이 떨어져요.”

J선교사님은 전략적으로 N지역을 정하고 수도에서 비거주로 사역을 하고 있다. N지역은 그 나라의 주 종족이 거의 100% 거주하는 곳이라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지면 생계가 끊기고 밤마다 집에 돌팔매질을 당하는 등 텁박을 받는다.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현지인 사역자를 세우는 일에 집중한다. 현지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해야겠다는 생각에서다.

“현지인들이 현지인들을 전도하는 게 최고죠! 제가 아무리 한데도.... 현지인들 계속 훈련시키면서 이 사람들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파되니까 참 감사한 거 같아요. 저는 뒤에서 그들이 필요한 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는 거죠.”

J선교사님의 목표는 2020년까지 N지역의 모든 마을에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한다.

## # 4. 오직 말씀으로

S선교사님은 ‘총체적 선교’와 ‘세계관 계발’의 틀을 본인의 모든 사역에 반영하고 있다. 지역개발부터 교회 개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설교 훈련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저는 사역철학이 설교예요. 설교에 목숨 걸지 않는 교회를 안타깝게 봐요. 제게 설교 준비하는 3-4일은 정말 피를 짜는 시간이에요... 교회가 오래 살아남으려면 목사 입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끌어내는 설교가 아니면 다 거짓말 이예요.”

선교사님이 설교를 중요시하게 된 데에는 한 선배 목사님의 도전이 있었다. 그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철저히 묵상하고 상고(詳考)하기를 끊임없이 하는 분이셨다. 그렇게 준비된 설교로 양육된 교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세상에서 열매 맺고 선한 영향력

을 끼치는 삶을 살더라는 것이다. 그것을 보면서 자신도 그런 사역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그래서 현지인 사역자들을 말씀으로 계속 도전하여 말씀에 눈을 뜨게 해주려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키워낸 현지인들이 주체가 돼서 사역을 해나가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선교사님은 “선교사 모임 가운데서도 말씀을 갖고 정말 고민하고 주석과 원어 성경을 찾고, 불꽃 튀게 토론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작은 희망사항을 전했다.



## # 5. 선교의 마중물처럼

O선교사님은 중앙아시아 초기 개척멤버 중 한 분이다. 선교사님과의 인터뷰는 정말 유쾌했고, 우리 리서치 팀에게 긴 여운을 남겼다. 마치 하나의 스토리텔링 (storytelling)처럼 1991년 개척 시기부터 현재까지 그 나라의 교회 상황과 개인 사역 등 굴곡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가 듣고자하는 내용을 군더더기 없이 단숨에 이야기해 나가셨다. 그분 자체가 중앙아시아 선교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 도전 받은 몇 가지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비의 마음’이다. 이야기 하시는 내내 얼굴에 인자한 미소를 볼 수 있었는데, 그 땅과 민족을 향한 아비의 마음이 가득함을 엿볼 수 있었다. 그 마음은 단지 그 민족만이 아니라 한인 사역자들과 외국 사역자들 모두를 품는 넓은 마음이었다. 둘째, 팀 사역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선교사들은 개인 단위로 사역을 진행

한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모든 사역을 팀으로 하셨다. 그 열매일까? 선교사님이 초기에 개척한 한 교회는 현재 그 나라에서 가장 힘 있는 교회 중 하나로 성장했다.셋째, 사역의 이양이다. 선교사님은 ‘내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개척한 교회도 신학교 사역도 다른 사람에게 이양했다. “내가 어느 정도 내 역할하고 교회가 탄탄하게 세워지면 다른 사람에게 이양하고... 몇 가지를 한두 번 하니까 이제는 의례 그게 습관이 되었어. 처음에는 솔직히 그게 쉽지 않았었어. 투자한 돈하고 시간하고, 내 인생이 아깝잖아.” 하시면서 ‘하하하’ 호탕하게 웃으시던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밝은 불이 켜지는 듯했다. 넷째, 리서치 사역이다.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지만 선교사역에서 리서치는 참 중요하다. 선교사님은 이미 1997년에 그 나라 주종족의 프로파일을 최초로 만드셨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리서치를 하고 계시다. 또한 리서치 결과물을 다른 선교사님들에게 나누신다. 참으로 귀한 섬김이 아닐 수 없다. 다섯째, 도전정신이다. 선교사님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기를 쉬지 않으신다. 새로운 선교운동과 전략들을 배우고, 그것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기를 계획하신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선교의 마중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초기 개척 멤버로서 그 땅을 복음으로 일궈 놓으시고, 지금도 계속 사역하시면서 본인의 경험과 지식 등을 거쳐 나누시는 모습이... 어려움도 많으셨다. 15년간 파송교회 없이 사역하셨고, 15년 동안 그 땅에 많은 사역을 일으켰던 사역 팀이 깨지는 아픔도 겪으셨다. 그 상처로 몇 년 간 힘든 시기를 보내셨지만, 고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고 감사로 다시 일어나셨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순종의 문제야. 상황이 좋던 좋지 않던 간에 우리가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열매가 많은 적든 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는 거.”

선교사님이 오래도록 그 땅의 아버이자, 선교의 마중물로서 역할하시면서 사역하시기를 바란다.



## GLCS 선교특강 1년을 돌아보며

일산 성석동에 자리한 GLCS(Global Leaders Christian School/글로벌리더스기독학교)는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교회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의 리더를 양육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입니다.

감사하게도 학교 측의 제안으로 2016년부터 2년의 과정으로 선교특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중3부터 고3까지 20여명의 학생들에게 매월 한 차례씩 ‘케빈의 삶’이라는 청소년 맞춤 선교특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케빈의 삶’은 가상의 인물인 케빈(Kevin - Kingdom, Evangelism, View, Integration, New generation)과 같이 하나님나라의 복음으로 충만하고, 역사적 복음주의의 신앙을 계승하며,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총체적이고 통합적 삶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의 선교사를 세우는 MVP선교회의 청소년 선교 훈련과정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훈련과정에 따라서 1학기에는 “하나님의 드라마”라는 큰 주제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하여 강의를 했고, 2학기에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다원화된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학기마다 한 차례씩 진행한 열방콘서트를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에는 “동행 - 함께 걷는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1박2일의 선교캠프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처럼 보이지만 이 일을 함께 걷는 믿음의 선배들과 동역자들이 있음을 확인하며 학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1년간의 훈련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음에 감사가 됩니다. 무엇보다 선교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풀렸고, 막연했던 선교가 가까이 다가왔다고 말하는 학생들의 고백이 도전 되었습니다. 선교는 특

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선교에 대하여 조금의 관심도 없던 학생들이 성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하여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할 때, 1년 동안 주님께서 학생들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교'는 청소년들에게 관심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입시에 대한 극심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생각할 때 '선교'는 청소년들에게 당장 필요할 주제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한 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청소년들에게 선교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말을 합니다. 당장 열매를 볼 수 없는 사역이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에서 청소년에게 힘을 쏟는 것이 낭비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 상황과 앞으로 직면하게 될 (이미 직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는 장벽들을 생각해본다면 어린 시절부터 성경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하나님의 구속사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끝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종말론적인 안목, 그리고 복음을 진실로 살아낼 수 있는 삶과 인격은 한 순간에 생겨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청소년기부터 선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세계적인 비전과 안목을 가진 선교사를 세워가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GLCS에서 지난 1년간 진행했던 선교특강은 이러한 생각에 더 깊은 확신이 생기도록 해 주었습니다.

비록 지금 눈앞에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에 담겨진 생명력으로 뿌리를 내리고 단단한 땅을 뚫어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청소년기에 뿌려진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비전은 생명력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장벽들을 뚫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선교특강을 위해서 모든 배려와 섬김을 아끼지 않으셨던 GLCS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과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었던 수업을 잘 들어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된 사랑하는 학생들, 그리고 특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MVP선교회 간사님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이들의 모든 수고는 결국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사역이 계승되는 일에 귀하게 드려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17년에 GLCS 선교특강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2017년에는 타문화와 타종교에 대한 이해와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특강을 듣는 학생들이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그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계적인 비전을 품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 MVP NEWS



## 1. 열방콘서트

“열방콘서트”는 열방을 위한 기도합주회로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10월에는 이한 선교사 파송식(Tj국)과 이새암/열매 선교사 사역보고가 있었고, 리사원에서 진행한 중국 신장 지역과 키르기즈스탄 리서치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에는 이바실 선교사(레바논) 선교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에는 열방콘서트 연말모임으로 자리에 참석한 지체들이 함께 기도제목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7년부터 열방콘서트는 새로운 장소에서 드리게 됩니다. 장소가 아직 결정되지 못했는데, 주께서 허락하신 좋은 장소를 찾을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2. 단기 SVM 2기 개강

단기 SVM 2기가 2월21일(화)~23일(목)까지 2박3일 가평에 있는 오륜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됩니다. 훈련생(선착순 15명)모집 중에 있습니다. 훈련생들과 섬기는 스탭들이 집중해서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3. SVM 34기 개강

2017년 상반기 SVM 훈련이 3월 11일 개강합니다. 매주 토요일 망원동 MVP 본부에서 10주간 진행됩니다. 현재 선교관심자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4. VTT 14기 개강

2주간 합숙선교훈련VTT 훈련(1월 9일 ~ 1월 21일)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4명의 훈련생이 참여하여 2주 동안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하였고, 특별히 1월 19일 ~ 21일은 러브무슬림 대회에 참가하여 이슬람 선교에 대한 새로운 암목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훈련을 수료한 분들의 이후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5. 어계인 밀알선교회 선교훈련

AMM 선교훈련이 9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주간에 걸쳐서 대조동 순복음 신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매 주 20여명의 신학생이 훈련에 참여하여 전방개척 미전도종족 선교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배웠고 그 중 15명이 수료했습니다.

훈련을 받은 분들 중에 7명이 간단한 정탐훈련 이후 1월 11일부터 19일까지 태국 관문도시 선교정탐을 다녀왔습니다.

## 6. 선교사 멤버케어

이응복 선교사(카자흐스탄 사역)가 멤버케어 분야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멤버케어는 ‘선교사들의 인생’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중요한 의미의 보살핌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멤버케어 시스템을 잘 구축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7. 간사 동향

오요셉(훈련, 동원), 김민숙(홍보, 출판)간사가 사임하였습니다. 후임간사들이 업무를 잘 감당해 나갈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8. 금식기도회

10월(13일), 11월(10일), 12월(8일)에 금식기도회를 했습니다. 다음 금식기도는 2월(9일), 3월(9일), 4월(13일)입니다. 매주 두 번째 목요일에 금식기도가 진행됩니다. 금식기도는 외부로 나가서 진행 되오니 참여하실 분들은 본부로 문의 바랍니다(02-703-1215).

## 9. 중보기도 팀 모집

MVP선교회의 10개 권역의 선교지 및 선교사들을 위한 정기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매월 2째 주와 4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 MVP 본부에서 진행되며 아울러 중보기도회를 이끌어갈 기도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사역에 동참하실 분은 문의바랍니다 (02-703-1215).



## 선교사 동향

---

- 11월 23일 이계절, 이강애 선교사 가정이 득녀(시향) 하였습니다.
- 11월 6일 이한 선교사가 인천부평중앙교회에서 파송예배를 드리고 11월 14일 Tj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 11월 20일 전세희 선교사가 대전이룸교회에서 파송예배를 드리고 11월 29일 E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 11월 12일 전빌립 김루디아 선교사 가정이 안식년을 종료하고 Tj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 12월 4일 장승리 유열매 선교사가 물댄동산수림교회에서 파송예배를 드렸습니다.
- 12월 23일 최윤철, 김수나 가정이 이집트 협력선교사로 허입되었습니다.
- 12월 23일 김선경 선교사가 키르기즈스탄의 협력 선교사로 허입되었습니다.

## 2016년 10월 ~ 12월 본부 후원자

---

강길용(3) 강상모(3) 곽정인(3) 구명옥(3) 김성규(3) 김세진(3) 김 솔(3) 김영이(3) 김유리(3) 김정한(3) 김종근(3)  
김진철(3) 김철우(3) 김현곤(3) 김형복(2) 김혜란(3) 김화경(3) 노병인(3) 문순동(2) 박건부(3) 박미애(3) 박미영(1)  
박아름(2) 방민경(2) 방은미(3) 백준호(3) 서연주(3) 서호균(3) 신동규(3) 신명규(3) 신소연(2) 신현경(2) 연인흠(3)  
오설란(3) 오희순(3) 유경희(3) 유정수(3) 윤여광(3) 이경애(3) 이귀태(3) 이동근(3) 이동욱(3) 이동욱(2) 이보람(2)  
이승규(3) 이승원(3) 이여범(3) 이유경(2) 이유리(2) 이은희(1) 이재만(2) 이재선(3) 이재춘(3) 이종영(3) 이종훈(3)  
이주용(3) 이지혜(3) 이충식(3) 이판호(3) 이현경(2) 이희정(3) 임하경(3) 전해솔(3) 정다은(3) 정성희(3) 정소라(3)  
정용환(3) 정정주(3) 정현성(3) 정현실(3) 정현진(3) 조명순(3) 조영남(3) 조정주(3) 조희선(2) 지경준(3) 지명준(1)  
진 현(1) 최용재(2) 최웅수(3) 하명수(3) 한남운(3) 한유경(3) 한은영(3) 한정국(3) 한천희(3) 홍성원(3) 황두환(3)

김지혜/김지은(3) 이태훈/이태욱(3) 정성진/은연옥(1)

(주)엠피코퍼레이션(1) 고현교회(3) 공종훈(하영통신)(3) 그소망교회(3) 꿈이있는교회(3) 남서울은혜교회(3)  
물댄동산수림교회(3) 분당친구들교회(3) 산돌중앙교회(3) 성실교회(3) 예수비전교회(3) 인천송월교회(3)  
임마누엘(3) 조경순(ksttuar)(3) 질그릇터(2)

우측 페이지에 선교사 각각의 후원계좌번호와 센터와 산하기관 등의 후원계좌번호가 있습니다. 후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이체가 번거로우실 경우, 홈페이지([www.mvp.or.kr](http://www.mvp.or.kr))에서 미션플러스(CMS 후원) 신  
청도 가능하며, 본사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02-703-1215).



## MVP선교회 후원계좌번호 안내\_거래은행:국민은행

MVP선교회 소속 선교사 후원계좌번호를 안내해드립니다. 본부에서의 원활한 재정 관리를 위하여 선교사 후원계좌를 본부가 관리하는 가상계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명단을 확인해보시고, 현재 재정 후원하시는 선교사 계좌번호와 다를 시 아래의 계좌로 변경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324790으로 시작되는 계좌번호는 가상계좌이기 때문에, 국민은행 계좌에서는 아래의 번호로 자동이체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농협, 우리, 외환, 기업, 신한은행에서는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외 선교사

계좌번호	예금주명	지역	계좌번호	예금주명	지역
324790-29-000395	이삭 열매	모로코	324790-29-000030	김계원	카자흐스탄
324790-29-000254	누사배	미얀마	324790-29-000126	한수아 임하경	카자흐스탄
324790-29-000168	데이빗 드보라	베트남	324790-29-000209	장승리 유열매	카자흐스탄
324790-29-000241	이길 한마음	베트남	324790-29-000027	김순심	키르기즈스탄
324790-29-000337	이복애	베트남	324790-29-000267	박수보	키르기즈스탄
324790-29-000270	신미래	UAE	324790-29-000465	다니엘조	키르기즈스탄
324790-29-000142	하비나바 흥희락	요르단	324790-29-000551	김이안 정안나	키르기즈스탄
324790-29-000072	허드슨 노비비	이집트	324790-29-000100	이갈렙 박은혜	타지키스탄
324790-29-000353	보배	이집트	324790-29-000225	전빌립 김루디아	타지키스탄
324790-29-000478	민슬기 장사라	이집트	324790-29-000296	박동행 김조이	타지키스탄
324790-29-000580	전세희	이집트	324790-29-000519	이한	타지키스탄
324790-29-000155	김수오 성복희	이스라엘	324790-29-000014	탁요셉 김사라	터키
324790-29-000283	이만민 나기쁨	이란	324790-29-000098	한밀알 글로리아	터키
324790-29-000548	이계절 이강애	인도	324790-29-000308	김기용 정은미	터키
324790-29-000069	제이콥리 샤론박	중국 신장	324790-29-000184	신여호수아 윤사랑	터키
324790-29-000171	김게바 흥알마	중국 신장	324790-29-000212	김소니아	파키스탄
324790-29-000340	엄미족 정부홍	중국 신장	324790-29-000085	채열매	국내
324790-29-000407	정해명	중국 신장	324790-29-000238	이바울 고예은	Y회사
324790-29-000481	한빛 누리	중국 신장			

### 국내사역 선교사

계좌번호	예금주명	지역	계좌번호	예금주명	지역
324790-29-000139	한정국 이경애	KWMA / MCC	324790-29-000113	김인애	리사원 원장
324790-29-000043	장선우 정순달	본부장	324790-29-000410	김홍빈 김영미	캠사원 원장
324790-29-000197	신길벗 이루리	본부총무	324790-29-000436	전상일 차윤주	훈련동원 총무
324790-29-000324	아굴라 브리스길라	벤사원 원장			

### 국외센터 / NGO / 프로젝트

계좌번호	예금주명	지역	계좌번호	예금주명	지역
324790-29-000366	이집트M센터	이집트	324790-29-000382	하베스트코리아	타지키스탄
324790-29-000379	모라비안센터	터키	324790-29-000564	시리아난민사역	이집트
324790-29-000056	난민뱅크	터키			

### 본부기금 및 산하기관

계좌번호	예금주명	지역	계좌번호	예금주명	지역
012501-04-182812	MVP선교회	본부	762301-04-235022	MVP선교회	청소년 캠프
055201-04-130496	MVP선교회	10권 역기금	762301-04-193960	MVP선교회	벤사원 기금
055201-04-130470	MVP선교회	MK기금	055201-04-130467	MVP선교회	리사원 기금
762301-04-169624	MVP선교회	건물기금	762301-04-193957	MVP선교회	캠사원 기금
762301-04-226167	MVP선교회	간사기금			

# 봄학기 SVM

School of Venture Mission

## • 왜 벤처선교인가?

21세기 선교 상황은 우리에게 개척, 도전, 모험을 요구합니다.  
벤처선교는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전방개척지역의 미전도종족을 향하여  
도전정신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모험을 즐기는 것입니다.

벤처선교훈련(SVM)을 통하여서 선교 이론과 현장의 만남, 현장 선교사들의 실제적인 강의,  
은사에 따른 팀사역, 최근의 선교동향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열방을 향하여 도전하고 모험하는 벤처선교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 일시, 장소

34기 | 3월11일 ~ 5월6일, 매주 토요일 (10am - 2:30pm)  
MVP선교회 서울본부 벤처홀 | 6호선 망원역 2번출구, 도보 3분

## • 신청문의

전화 | 02.703.1215 E-Mail | [svmkkorea@gmail.com](mailto:svmkkorea@gmail.com)  
훈련비 | 25만원(개강 2주전 선등록 시 23만원)  
계좌 | 국민은행 762301-04-191966 (예금주:서울 SVM)

## • 강사

장선우(MVP본부장) / 조명순(한국형선교개발원 대표)  
김홍빈(GCN대표, 캠퍼스&교회개척선교사역개발원장) / 김인애(리서치선교사역개발원장)  
구영삼(비지니스선교사역개발원장) / 전상일(MVP훈련총무)

## • 강의

선교신학 | 오프닝데이 / 선교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 / 선교동향과 우리역할  
선교전략 | 리서치 선교 / 캠퍼스&교회개척 선교 / 비지니스 선교 / 리트릿  
선교동원 | Action Day / 선교와 중보기도 / 선교적 공동체